# 서원과 선비문화 상생의 길 열린다

###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국립전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7일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사 장 이배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조선 선비문화의 활 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학술연구 진흥 및 상호 공동 연구 ▲전시 및 연구를 위한 지료 대여 등 협조 ▲학술 관련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이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 관리단은 한국의 9개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서원은 조선 첫 서원인 영주 소 수서원을 비롯하여 경주 옥산서원, 안 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달성 도동서 원, 함양 남계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압서원, 논산 돈암서원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특성화 시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계 특별전과 선비문화 아카테미 등 다양한 시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옥 여막에는 서비무하 주제에 맞추어 어린이박물관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선 비문화실을 신설하여 관람객에게 선보 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한국의 서원문화가 향후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순기 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립전주박물관과 (재)한국 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상호 유기적 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서 원 관련 컨텐츠 개발과 연구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선비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군산대 학생창업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 수상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재학생 으로 이루어진 학생창업기업인 '유스타 팅(대표 이영근, 팀원 이현)이 2019년 특허청 주최 지식재산정보활용 창업경 진대회에서 '한국특허정보원장상'을 수 상했다.

수상작은 특허청 공공데이터의 랜덤 추출과 분류기술을 활용한 '데일리아이 피(Daily I.P) 서비스로, 발명 및 아이디 어의 영갑과 관련된 분야 선행기술 수 집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및 예비창 엄가 등이 서비스 주요 타겠이다.

유스타팅의 수상작인 '데일리아이피 (Daily IP) 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 보데이터를 랜덤으로 추출하고, 사용자 가 지정한 분류별로 추천을 해주는 기 술을 통해, 발명과 창작활동을 보조해주 는 서비스이다.

유스타팅 대표 이영근 씨는 "그동안 발명이나 창작활동에 있어서 아이디어 의 원천과 영감을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면서 "창작 활동에서 Olo)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반 새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이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데일리아이피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지식재산정보 활용창업경진 대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 보원이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창업경진 대회이다. 특허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모 받아 아이디어 부문과 창 업화 부문으로 나눠 시상 한다.

/군산=김정훈기자



전북대학교 동문인 ㈜비나텍 성도경 대표가 대학발전을 기원하며 5천6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 "지역의 미래가 될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 비나텍 성도경 대표, 전북대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학교 동문인 ㈜비나텍 성 도경 대표(공대 전자공학부 86년 졸업)가 대학발전을 기원하며 5천 6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10일 성도경 대표를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통해 감사패 등을 전달하며 감사를 표했다.

성 대표는 전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한 ㈜비니텍을 설립했다. 국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슈퍼커패시터 국내 점유율 99%를 차지할 만큼 탄탄한 전북 토종기업 인 비니텍은 소형 슈퍼커패시터 분 야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위 를 기록하고 있다.

㈜비나텍은 전북 토종 우수기업 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 재 육성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 다. 특히 2011년부터 8년 간 한 해 도 빠짐없이 직원들이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덕진구청에 전달하고 있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나눔회 봉사단(회장 한상진)을 만들어 매 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사회복지시 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

이번 발전기금 역시 지역의 미래 가 될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것. 평소 성 대표 자신이 졸업한 전자공학부 학

생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 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성 대표는 이 기금을 전자공학부에 지정해 후 학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길 바랐다. 성도경 대표는 "그간 지역 에서 기업을 운영해오면서 선배로 서 모교 후배들을 위한 나름의 역 할을 하고 싶었다"며, "우리 전자공 학과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 하고, 모교 역시 더욱 발전해 나가 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대학 발전과 후학 들을 위해 기금을 기탁해주신 것에 대해 대학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 은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훗 날 누구나 다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이 나서 적극 지원하겠 /장은성 기자 다"고 화답했다.

## 도교육청, 석면해체 · 제거학교 모니터단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석 면해체・제거 모니터단을 운영해 더 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

방학 동안 도내 초ㆍ중ㆍ고 및 특수 학교 57개교의 석면을 해체・제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2층 강당에 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감리원, 학부모, 민간단체 등으로 구 성된 모니터단 250명을 대상으로 교 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교 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환경관리 공단의 협조를 받아 학교 석면제거 추진방향, 석면 일반 현황, 석면 해 체·제거 과정, 모니터단 활동요령, 현안사항 등에 대해 집중교육이 이뤄

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등 석면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통 해 현장 인식을 제고하고, 석면해체 • 제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더욱 안전 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습더딤학생 지원 강화 '총력'

### 도교육청, 이야기 나눔터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기초 학력 이야기 나눔터를 운영, 학습더 딤학생 지원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는 교육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역별 초・중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교와 초등2학년 첫걸음지원학교 담당교사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업무담당자 이 야기 나눔터는 상ㆍ하반기로 운영된 다. 이야기 나눔 일정과 운영방법은 교육지원청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하 며, 상반기에는 운영학교별 계획과 운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하반 기에는 운영 사례 나눔과 더불어 정 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도교육청 중심 이야기 나눔터는 교 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지난 5월 10일 맞춤형학습지원학급 담임교 사 이야기 나눔터를 운영했으며, 오

는 28일 기초학습 더딤학생 읽기, 쓰 기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손바닥 그림책 활용 연수'등을 통해 초등2 학년 첫걸음학급 담임교사 역량을 강 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실천교원 과 맞춤형학습지원학급 담임교사 역 량강화 지원을 위한 원격연수도 개설 하게 되다

오는 7월 22일은 도교육청 8층 회의 실에서 '고등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 교 이야기 나눔터 를 운영하는 등 전 리북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수준의 학 습더딤학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 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지는 "단위학교 수준 학습더딤학생 지원으로 학교간 학력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맞춤형학 습지원으로 배움에서 단 한 명도 소 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체육회, 선수트레이너 2명 신규 채용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선수들 의 기량 향상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 는 선수트레이너(AT지도자)를 보강 했다. 10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 근 김우람(27), 최예원(24·여)씨 등 2명을 AT지도자로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T지도자는 기존 2 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으로 이들은 선수들의 컨디션 조 절은 물론이고 마사지와 테이핑, 재 활 등을 집중 지원하는 등 선수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각 경기 종목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전국대회가 열리는 현지로 파견 돼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며 지원사격

을 하게 된다.

신규 채용 된 선수트레이너들은 "전북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AT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데 숨은 공신이다"며 "선수들이 경기 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AT지도자를 운영하고 있 고, 지난 2014년부터 전국(소년)체전 을 비롯해 각종 전국 대회에 이들을 파견,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김현미 장관, 우석대 '유레카 초청 강의' 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완주군 에 있는 우석대학교를 찾아 특별강연 을 갖는다.

우석대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전주 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김 장 관이 유체카 초청 강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김 장관은 대학생 및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을 가질 예정이다.

우석대는 장영달 총장 취임 이후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유레카 초청 강의를 펼치고 있다.

1999년부터 우석대 교양 필수 과목 인 '유레카 초청 강의'는 매주 목요 일 국내외 저명인사를 비롯해 본교 출신 선배를 초청, 그들의 삶과 인생 을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시간 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9월 강경화 외교부 장 관과 지난 3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 관이 이 강의를 위해 우석대를 방문 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이 다시 우석대에서 강의하게 된다는 점 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읍 출신인 김 장관은 전주여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2003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2004 년 열린우리당 대변인, 2014년 새정 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을 역임 했다. /뉴시스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